

Interview

〈열린 지성〉 초대석



정운찬 총장

제3호 〈열린지성〉의 ‘초대석’에서는 서울대 정운찬 총장을 만나 서울대의 기초교육과 서울대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Q 총장님은 2002년 취임 이후 곧바로 ‘기초교육원’을 설치하고 교양강의 구성을 재편하는 등 기초교육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기초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A 기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이를 실행에 옮겼을 뿐입니다.

기초교육의 중요성은 실용적 측면과 학문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용적 측면에서 생각해봅시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던 과거에는 세분화된 전공·응용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사회 진출에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는 오늘날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대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좁게 아는 것보다 넓게 아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교육은 다양하고 폭넓은 교양을 쌓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문적 측면에서 기초교육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고, 반도체·조선 등 몇몇 산업분야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축적해 놓은 지식을 전수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 창출은 폭넓은 기초 소양을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Q 서울대의 기초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신다면?

A 현재 서울대의 기초교육에는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 내에서 기초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중등교육이 평준화되기 이전에는 고등학교에서 소수의 중요 과목에 대해 상당한 기초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 이후 고등학생이 배워야 하는 과목 수가 늘어남에 따라 넓고 얇은 교육이 이뤄지다보니 정작 대학교육에 필요한 기초가 부실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고등학교 시절 기초적 소양을 충분히 기를 수 있었던 교수들은 여전히 대학에서는 전공 교육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교육이 과거보다 절실한데도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부족한 기초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Q 기초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A 기초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교육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초교육은 3R, 즉 Reading, Writing, Arithmetic을 말합니다. Reading과 Writing은 국어·외국어(특히 영어)·한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Arithmetic은 수리적 사고 능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말하기·Discussion도 기초교육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진 교수들이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 본 교수들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좋은데도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초교육으로 제공되는 분과학문의 기초과목에 대한 것인데 교수들이 전공영역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기초과목인 경제학개론에 대해 전공과목인 경제학원론을 요약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경제학개론에서는 기초적인 경제이론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정치·사회·문화·사상 등을 함께 다루 경제학의 기초적 소양, 경제학 마인드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데 말입니다.

덧붙여 말해서, 신입생세미나 코스도 기초과목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수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등 풍부하고 오랜 경험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자리로 기획했습니다. 100여 개 강의를 개설할 계획이었는데 60여 개만 개설됐고, 더욱이 젊은 교수들이 대부분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1학점 과목이라서 의무규정학점에 도움이 안 돼 안 하는 건지, 기초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어려워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학생들을 위해 Senior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합니다.

Q 그렇다면 기초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기초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우선 대학 구성원들이 기초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하고 원숙한 Senior 교수들이 기초교육을 담당해야 합니다. 물론 기초교육에서도 전공교육 못지않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Q 기초교육과 관련하여, 서울대는 장기적으로 ‘학부대학’을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그 중간단계로 ‘기초교육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폭넓은 교양교육과 깊이 있는 전공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대학,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분과학문 체제에서 학부대학으로 급전환하면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학부대학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기초교육원을 우선 설치한 것입니다.

학부대학과 기초교육원은 기초교육을 내실화해보자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내용만을 고려한 기초교육원과는 달리 학부대학은 기초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춘 형태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교육원보다는 학부대학을 도입하여 기초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학부대학의 운영방식에 관해서는 미국 주요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 연구 중입니다.

Interview



서울대는 역사적으로 사회 각 분야의 근대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하게 많은 단과대학과 학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대학을 도입해 학부교육을 통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자유전공모집제를 도입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학부대학을 도입하는 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A 대부분의 단과대학이 학부대학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학 3~4년 동안 전공교육을 하기에다 벽찬데 어떻게 학부대학까지 설치해 기초교육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제학부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 학부대학에서는 경제학 전공과목을 열 과목 정도 이수하도록 하는 반면 서울대의 경우에는 스무 과목 정도를 이수하도록 합니다. 우리 학교와 같이 많은 전공과목을 듣게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경제학원론, 거시경제이론, 화폐금융론을 강의해 봤지만 대개 많은 내용이 겹

치기 때문입니다. 전공과목을 스무 과목 가르치기보다 이를 조금 줄이고, 그만큼 기초교육에 할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학 4년에서 기초와 전공의 비율을 현재의 1:3에서 2:2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학기술 소양을 갖춘 인문학도·사회과학도, 인간 및 사회 문제를 고민할 줄 아는 자연과학도·공학도를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학생들은 사회 변화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Q 서울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의 미래상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는 지식 전수 기관에서 지식 창출 기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총장으로서 3년 동안 다양화·기초 강화·슬림화·대학원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양화’는 대학 구성원의 다양화와 대학 구성원 활동의 장의 다양화를 말합니다. 대학 구성원의 다양화라는 것은 국내적으로 특기자 전형, 지역균형 선발 등을 통해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국외적으로 타교 출신교수와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교수의 경우 서울대 출신만을 고집하기보다 많은 외국인 교수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활동의 장을 다양화한다는 것은 우리 학생, 교수를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앞서 있는 미국, 유럽의 대학뿐 아니라 우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못한 대학과도 교류해 다양한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기초 강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슬림화’는 대학 정원을 줄여 대학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일류대학을 보더라도 서울대만큼 큰 대학은 없습니다. 학생이 많으면 질 높은 교육(quality education)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 정원을 625명, 대학원 정원을 705명 정도 줄였습니다. 앞으로 서울대 학생 수를 2만~2만5천 명 정도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대학원 강화’는 우수한 사람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등록비·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연구에 매진하며, 졸업 후 취직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특히 대학원생에게 생활고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대학원 전액 장학제도를 마련했고, 생활비로 60~7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지식 창출 기관’은 아무래도 연구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뿐 아니라 교육과 사회적 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의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A 서울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연구를 강조해 왔습니다. 정년 보장, 승진 등의 유인책으로 교수들에게 논문 발표를 중용했습니다. 그 결과 교수들이 상대적으로 연구에만 더 몰두하고 교육을 소홀히 하는 면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입니다.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이 우선, 연구가 차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위해 '훌륭한 교수상'을 마련해 2월부터 교육성과가 뛰어난 교수 10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교육이 금방 정상화되지는 않겠지만 교수들로 하여금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역할은 교육과 연구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대학의 또 다른 역할로 사회봉사를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가 개방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환경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으면 사회에 진출하여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수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 서울대가 속한 관악구, 서울시, 대한민국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학은 교육·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연구를 소홀히 하고 사회봉사에만 전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Q 총장님의 대학생활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와 현재 대학생활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제가 대학생활을 하던 당시에는 너무나 빈곤했습니다. 책도 많지 않았고, 개인지도로 생활비를 버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을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서 비교적 방황하는 시간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읽어야 하는 책들이 정해져 있었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요즘 학생들은 풍요 속에서 대학생활을 영위합니다. 학업 외에도 여행, 아르바이트 등 이런저런 활동을 할 기회가 많고, 넘쳐나는 책들을 골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그렇다면 선택을 잘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무엇보다 계획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영미인들은 1년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자신이 지나 온 세월과 앞으로 보낼 시간들을 계속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가야할 길을 명확히 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단기적인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이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planning horizon을 넓히고 자기 삶의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A 자율적으로든 타율적으로든 대학에서는 학과와 전공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고대 총장을 지낸 유진오 선생님도 어떤 글에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학과와 전공이 결정되면 이에 몰두해야 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기를 바랍니다. 보다 엄격한 자세로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추스르고, 보다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주위사람들을 대할 때, 더 나은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인터뷰 : 이경일 / 홍정민

☒ 사 진 : 최정민